



이스라엘 토지 구매의 예언적 중요성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8년 4월 28일

예레미야 서는 예루살렘 파괴,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열국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심판의 예언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부분이 자리합니다(렘 29-33). 그리고 그 부분의 중심 되는 장에 “새 언약”이라는 위대한 예언이 있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거라 말씀합니다(렘 31:31-34).

성경의 문맥 가운데, 새 언약은 이스라엘 회복의 일부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도 새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묘사 직후에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멸절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31:35-37). 언약을 처음으로 맺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언약이 유효한 한 그들의 존재는 당연한 것입니다. 죄 사함이 새 언약의 항목 가운데 있듯이 유대 민족의 존재도 거기 포함됩니다.

이 영광스런 용서와 회복의 약속은 하나의 실제적 문제, 즉 이스라엘의 토지 구매로 귀착됩니다. 32 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고 바빌론 사람들은 이미 성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명하여 아나돗의 토지를 사라고 하십니다. 증인들을 세우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1-12 절).

그리곤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언약적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15 절)”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때가 아닌 “여러 날(14 절)”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들을 요약해 봅시다.

1. 새 언약이 주어질 것이다.
2. 이스라엘 민족은 짓밟혀 흩어질 것이다.

3.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적으로 흩어짐 가운데서도 보존될 것이다.
4. 수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모이고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5. 그 때에 새 언약을 믿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나머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집과 토지를 살 것이다.

전쟁 가운데 토지를 구매하라는 제안은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러려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25 절)” 이것이 유명한 찬양곡 후렴의 성경적 문맥입니다. “아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위대한 능력으로 지으셨습니다. 당신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17 절 & 27 절).”

주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강조하신 바로 그 때, 달러화는 추락하여 이스라엘 부동산 가격이 경총 뛰어 올랐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박해도 심해졌고 테러 단체들은 주요 무기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메시아닉 남은 자들은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제 많은 젊은 가정들이 집을 구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기회와 사탄의 공격은 동시에 임했습니다. 저희는 예레미야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당신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처럼 보였지만, 예언의 때는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는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성도들을 위해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비단 실용적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언적 중요성이 거기 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저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3:37-39)” 외칠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 예슈아를 예언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마지막 때 저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분을 초대할 충분한 숫자의 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천사들이나 이미 하늘로 간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영적 다리를 놓는 일이요 예슈아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의 연결은 마태복음 23 장의 기도에 나타납니다. 땅과의 연결은 예레미야 32 장의 구매에서 드러납니다. 저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슈아를 대표한다면, 이렇게 구매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예슈아의 “구매 증서”가 됩니다. 최근 신디 제이콥스는 저희에 대해, “토지, 토지, 토지...”라는 간결하지만 심오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 분의 오심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동 “언약” 기업체입니다. 저희는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닉들이 협력하여 이스라엘 땅을 구매하는, 말씀의 성취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땅을 공동 소유로, 공동 출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젊은 이스라엘 가정이나 사역 단체가 집 혹은

건물을 사도록 도울 마음을 주신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동역의 방법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 고병현

Shaul Syunghyun Go